

##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업 』

송 자 (명지학원 이사장, 전 연세대학교 총장, 기경원 이사장)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기업의 정의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다. 한때는 기업을 정의하려면 꼭 이윤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고객을 섬긴다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땀 흘릴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일자리는 거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업을 단순히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한다든지, 고객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업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진다면 그 제도는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경쟁력이 없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해 나가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에게 자유와 부를 많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기업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다른 목적과 연결되면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바로 평범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삶의 터가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들어 줄 때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잘사는 삶의 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과 고정적인 보수를 원한다. 요즘에 문제되는 것처럼 거액의 보수를 받는 CEO가 아니다. 기업이 파산되고 종업원들이 실업자가 되는데도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경영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성과급이 좋다고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고 지나치게 고객위주의 경영을 위해 종업원들의 희생을 한없이 요구할 수 없다.

기업이 안정된 직장과 고정적인 보수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업이 우리들의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번 선택을 하고나면 내가 선택한 직장을 나의 평생직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장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평생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들은 우리가 선택한 직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생직장을 보장하고,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경영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본다. 너무나 주주의 이익 즉, 주가에 민감하고 또 고객을 앞세우다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도 성장하고 발전하여 잘사는 삶의 터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라는 우리의 기도를 실현시키려면 기업도 우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무한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익도 창출된다고 본다. 노사가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